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 9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연구

이수연 · 김원홍 · 김영택 · 김인순

KW/D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연구

연구책임자 : 이 수 연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원 홍 (본원 연구위원)

김 영 택 (본원 연구위원)

김 인 순 (본원 전문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시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들의 입국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 한국 입국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한국 정착 후 정신적으로 외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입국 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 한국에서 삶과 미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이상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중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불안은 이들 청소년들의 정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인구의 심리적 불안은 우리 사회가 겨안고 같이 해결해줘야 할 문제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 입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지원 방식을 넘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이탈과 입국, 정착에서 겪는 특수한 경험과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 그리고 신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될 것입니다.

수시과제 속성상 짧은 기간에 이 연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의 노력에 치하를 드리며 이 연구가 북한이탈여성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 목적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입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지원 방식을 넘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이탈과 입국, 정착에서 겪는 특수한 경험과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 그리고 신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다.

2. 연구 내용

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 1) 연령, 계층, 결혼상황별 입국 및 정착 현황
- 2) 탈북 현황 및 탈북에 대한 태도

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1) 북한이탈여성의 난민상황에 따른 심리적 특성
- 2)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현황
- 3) 북한이탈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정부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하나원, 하나센터, 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기존 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한계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한다.

라.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1) 정책방향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프라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방안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이용하여 안정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 가. 문헌연구
- 나. 전문가 자문
- 다. 기존 프로그램 분석

4. 연구 결과

국가 혹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한 이탈 과정을 겪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보완 필요

이 교육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하나센터의 상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정착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란데 장점이 있다. 정착한 후에는 개인의 속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진 지원과는 달리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60시간이라는 의무 시간,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따라 상담을 꺼리는 사람들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담을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하는 상담원은 한국 적응을 위한 직업이나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나. 시민단체 프로그램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1)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일 것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자체 예산으로 혹은 여성가족부나 다른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은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적은 예산에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예산의 지속성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심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2) 상담원 확보의 어려움

다음으로 상담원의 자질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상담가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일반 상담학 전공을 한 전문상담가이고 다른 부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동료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동료상담원이다. 전자의 경우 상담학을 전공하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담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3) 심층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음으로 많은 현장활동가들은 심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층 프로그램이란 앞에서 말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심리적 끈이 형성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5. 정책 제언

가. 지원 방향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은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시민사회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한국 사회의 다른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 중복지적이고 과도한 지원으로 보일수도 있다. 또한 특정 정책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 북한이탈여성을 위해서도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십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은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정책대상이므로 이 두 부처의 산하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부처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처 조직과 함께 현재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든 대신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결과를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 훈련, 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단체 사업을 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육아기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비상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평상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여성인 경우 일과 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가 된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하여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나. 프로그램 제언 및 개선 방안

1)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가) 필요성 및 목적

기존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상담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에 맞춘 심층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조직 및 상담원 양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북한주민지원재단의 여성쉼터,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 등에 설치한다. 또 북한이탈여성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 조직(새조위, 새터민지원센터 등)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조직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은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센터” 혹은 “북한이탈여성 정서지원실” 등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조직에 상담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훈련과 재교육을 책임진다.

상담원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의 관리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이 실제 상담사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이를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나 혹은 동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상담에 투입된 후 월 1~2회 워크숍을 통해 이들이 상위 전문가와 만나 상담경험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심층 컨퍼런스를 갖는다. 여기서는 각 상담센터의 특별한 상담사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한다. 이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2)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심리 지원 요소가 빠져 있다. 직업상담사와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있으나 직업훈련 시에 겹으로 봐서는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북한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어서 일 자체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며 언어차별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도 많다. 이와 관련해 취업하여 남한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숙박도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심리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취미 동아리를 겸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때로 소통에 장애가 된다.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분단의 세월만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한국의 언어는 잦은 외래어 사용, 그리고 북한과 다른 존대법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언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다. 이러한 언어의 문제, 그리고 한국 출신 강사와 북한 출신 교육생 사이의 서먹함 등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언어 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5
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5
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5
라.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6
3. 연구 방법	6
가. 문헌연구	6
나. 전문가 자문	6
다. 기존 프로그램 분석	7
4. 연구 기대효과 및 한계	8
II.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현황	9
1.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11
2. 탈북 유형과 탈북에 대한 태도	13
가. 탈북요인	13
나. 탈출경로	13
다. 탈북유형	15
라. 탈북에 대한 태도	17
III.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19
1. 북한이탈여성 심리적 특성	21

가. 남한 정착 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21
나. 남한 정착 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22
2.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5
가. 남한 입국 전 건강상태	25
나.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	26
다. 객관적 건강상태	27
라. 앓을 때 취하는 조치	28
마. 남한 병원 신뢰 정도	29
바. 북한이탈여성의 정신 건강	30
 IV.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35
1. 국가 주도 프로그램	37
가. 하나원과 하나센터	37
나. 이북5도위원회	38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8
2. 시민단체 프로그램	39
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40
나. 인천새터민지원센터	42
다. 광주 새터민 건강복지센터	42
라.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43
마. 남북사랑네트워크	44
바. NK 지식인연대	44
사. 한국여성경영자 총협회	45
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45
3.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	47
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보완 필요	47
나. 시민단체 프로그램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48

V. 북한이탈여성 심리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53
1. 지원 방향	55
2. 프로그램 제안 및 개선 방안	56
가.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56
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	60
다. 취미 동아리를 겸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60
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62
■ 참고문헌	65
■ Abstract	69

표 목 차

<표 I-1> 자문위원 명단	7
<표 II-1> 연도별 성별 입국인구 추이	11
<표 II-2> 입국자의 연령별 분포	12
<표 II-3> 북한에서의 학력별 분포	12
<표 II-4> 북한에서의 직업유형별 분포	13
<표 III-1>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23
<표 III-2> 우울,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	24
<표 III-3>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	24
<표 III-4>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건강상태	26
<표 III-5>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	26
<표 III-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주진단 순위	28
<표 IV-1>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북한이탈여성 심리 프로그램 공동 협력 사업	40

그림 목 차

[그림 II-1] 북한주민의 탈북 후 이동경로	15
[그림 III-1] 성별 북한이탈주민이 아플 때 취하는 조치	29
[그림 III-2]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병원 신뢰정도	3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연구 기대효과 및 한계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가시성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이들의 입국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꾸준히 늘어 왔다. 2001년부터는 매년 천여명이, 2006년부터는 이천여명이 입국하여 2010년 7월에는 누적합계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에도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입국자의 과반수를 넘었고 2012년 7월에는 한국 거주 전체 북한이탈주민 중 69%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365>, 검색일: 2012년 9월 21일).

북한이탈여성은 탈북 이후 경험에 있어 북한이탈남성과 차이를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러시아 같은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오게 되고(이영선 외, 2011, 149). 제3국 체제기간은 평균 2년 이상이다. 그런데 탈북 후 타국 경유와 한국 입국 과정에서 여성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국을 통해 입국할 경우 강제결혼,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등 인권유린을 당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인영 외, 2010). 북한에서 이미 결혼한 여성이 중국에서 새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 법적 시민권 취득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며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집과의 관계와 폐쇄적 생활 때문에 괴로움을 겪거나 중국인에 의한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한다. 한국에 와서도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 때문에 정서적 어려움이 크고(장혜경·김영란, 2000) 북한과 한국사회 사회체제의 차이, 북한 사회에서 형성된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여성이 탈북과 한국 입국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한국 정착 후 정신적으로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입국 과정에서의 외상적 경험, 한국에서 삶과 미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적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요할 정도의 육체적, 심리적 건강에 이상을 가지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증,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신경증 등 증상이 일반 여성보다 높다(이영선 외,

2011). 육체적으로는 부인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관련 지식이 낮아 생식건강관리를 제도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영선 외, 2011). 한국 입국 초기 여성들의 다면적 인성검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임상적 관심을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시사한다는 결과도 있다(김희경 외, 2010).

심신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경우에도 북한에서 습득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부부가 같이 정착한 경우 아내는 가사노동분담 등 부부의 역할에 대해 의식의 변화를 보이는 데 반해 남편은 북한에서의 성역할분담을 당연시하여 한국의 부부들과 자신들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이것이 갈등의 요소가 된다. 따라서 결혼 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심리적 갈등이 매우 심하고 다른 여성들에 적대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강차연, 2005). 이에 따라 임신, 출산, 육아, 가사와 직장생활 사이에 다른 여성들보다 더 큰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여기에 한부모 가정에서 여성이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 배우자 없이 자녀와 입국하는 비율이 늘어나 자녀교육을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교육체제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경제적, 심리적 이중, 삼중고를 겪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직업기초능력과 언어장벽 등으로 취업률이 낮고 고용상태가 불안하며 업무만족도가 낮아 경제 자활력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도 크다. 직장생활에 있어서도 업무에 대한 기대 수준도 다르고 대인관계가 어렵다.

이처럼 다중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기 쉽다. 더구나 청소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불안은 이들 청소년들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으며 따라서 우리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인구의 심리적 불안은 우리 사회가 꺼안고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들의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이탈입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초기지원 방식을 넘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이탈과 입국, 정착에서 겪는 특수한 경험과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 그리고 신체,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 1) 연령, 계층, 결혼상황별 입국 및 정착 현황
- 2) 탈북 현황 및 탈북에 대한 태도

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1) 북한이탈여성의 난민상황에 따른 심리적 특성
- 2)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현황
- 3) 북한이탈여성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

다.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현황

1)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하나원, 하나센터, 이북5도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2)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 현황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의 공동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3) 프로그램 분석 및 평가

기존 프로그램의 효용성 및 한계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 개선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모색한다.

라.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1) 정책방향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와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프라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정책방안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이용하여 안정적, 지속적,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과 입국 경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 건강 현황,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에 대한 문헌을 정리한다.

나.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는 이들을 장기간 접촉해 본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전문가를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현장에서 북한이탈여성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의 직종과 소속단체는 <표 I-1>과 같다.

- 1) 기존 북한이탈여성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체 관련자
- 2) 북한이탈주민 출신 전문상담활동가
- 3) 전문상담가 및 상담학 교수
- 4) 담당 부처 공무원

〈표 I -1〉 자문위원 명단

번호	직종	소속 단체명
1	시민단체 활동가	광주새터민복지센터
2	시민단체 활동가	(사)글로벌투게더
3	시민단체 활동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사)글로벌투게더
4	시민단체 활동가	남북사랑네트워크
5	시민단체 활동가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6	시민단체 활동가(대표)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7	시민단체 활동가	(사)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8	시민단체 활동가	(전)그린서비스협회
9	시민단체 활동가	인천새터민지원센터
10	상담학 교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1	상담가	하나원
12	상담가	(전)하나원
13	상담가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다. 기존 프로그램 분석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과 시민단체에서 수행하는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 기대효과 및 한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이중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이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한데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탈북경험을 심리적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상태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보다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정책의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 상담, 교육 매뉴얼 같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를 수행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매뉴얼의 필요성 및 내용은 정책방안으로 제언하였으나 실제 매뉴얼의 개발은 후속 과제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II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현황

- | | |
|---------------------|----|
| 1.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 11 |
| 2. 탈북 유형과 탈북에 대한 태도 | 13 |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사회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탈북자’ ‘새터민’으로 불리워지고 있지만, 1997년 제정되어 2010년 전문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은 북한이탈남성, 여성은 북한이탈여성으로 칭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북한이탈여성의 이주 규모, 입국경로와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기로 한다.

1. 북한이탈여성의 이주현황

2012년 10월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자수는 24,309명으로 2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북한이탈남성의 수는 7,504명으로 31%를 차지하며 누적 북한이탈여성은 16,805명으로 69%를 점하여 남성의 2배에 달하고 있다. 2002년부터 여성이 비율이 남성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그 추세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표 Ⅱ-1〉 연도별 성별 입국인구 추이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	831	565	511	473	626	424	514
여	116(12)	481(46)	632(55)	810(63)	1273(67)	958(69)	1512(75)
계	947	1046	1143	1283	1899	1382	202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남	572	608	664	589	797	330	7504
여	198(78)	2196(78)	2253(77)	1812(75)	1909(70)	872(72)	16805(69)
계	2553	2804	2917	2401	2706	1202	24309

자료: 통계청, 정착지원과 자료, 2012. 10월 입국자 기준

12 ●●●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연구

연령별 분포는 성별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전체 입국인구의 연령구성을 보기로 한다. 20대 27%, 30대 31%, 40대 16%로 20대와 30대가 74%로 가장 많으며, 1990년대 이후 늘어난 가족단위 탈북으로 노인과 아동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표 II-2〉 입국자의 연령별 분포

	~ 9세	10-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계
누계	981	2,764	6,460	7,292	3,826	1,192	1,080	23,595
비율	4%	12%	27%	31%	16%	5%	5%	100%

자료: 통계청, 정착지원과 자료, 2012. 5월 입국자 기준

학력별 구성 역시 성별로 구분된 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전체적 윤곽을 보면, 고등중학교가 70%로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며, 다음으로 전문대와 대학이상이 각각 9%, 8%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3〉 북한에서의 학력별 분포

	취학전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	전문대	대학이상	기타(불상)	계
누계	638	215	1,535	16,569	2,168	1,677	793	23,595
비율	3%	1%	6%	70%	9%	8%	3%	100%

자료: 통계청, 정착지원과 자료, 2012. 5월 입국자

북한에서의 직업현황을 보면, 무직이 50.0%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노동자로 38%를 점하여 무직과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88%에 달하고 있다. 봉사분야로 분류된 직업이 4%, 군인 3%, 관리직 2%, 전문직 2%, 예술체육이 1%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탈북자들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군인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는 외교관, 무역종사자,

유학생, 북한정부의 고위인사 등 출신성분이 다양해지고 있다(최동문, 2009)는 분석에서, 최근 들어 전문직을 가진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Ⅱ-4〉 북한에서의 직업유형별 분포

	무직	노동자	관리직	전문직	예술 체육	봉사 분야	군인	계
누계	12,061	8,968	393	482	194	871	626	23,595
비율	50%	38%	2%	2%	1%	4%	3%	100%

자료: 통계청, 정착지원과 자료, 2012. 5월 입국자 기준

2. 탈북 유형과 탈북에 대한 태도

가. 탈북요인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주로 해외 유학생이나 인민군 등 정치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소수자들이 입국했으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이 발생하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통치와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식량, 생필품,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생존권 차원에서 탈북을 시도했다(우승지, 2005). 최근에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려는 등 가족과 개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불법 이민자형’으로 변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양운철,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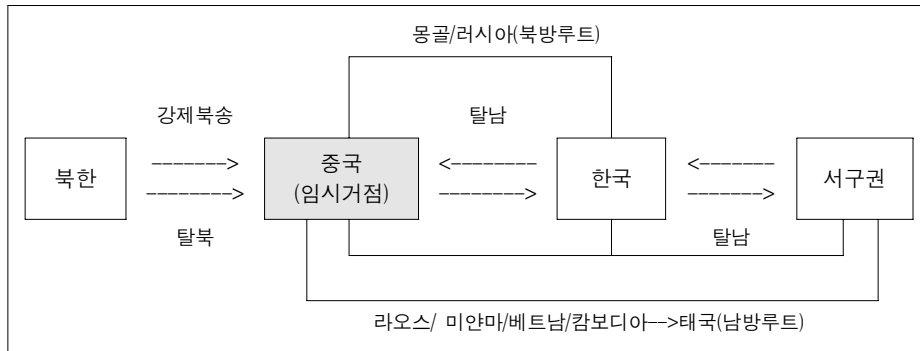
나. 탈출경로

탈북자의 탈출 및 국내 입국경로는 1990년 초반까지와 1990년 중반부터로 나누어 그 양상이 구분되고 있다. 19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육로,

해상, 강을 통해 휴전선을 직접 넘어 남하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지역의 국경(북중, 북러)을 이용하여 탈북하기 시작했다¹⁾(김윤영, 2011).

북한주민이 탈북을 결심하고 북한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까지는 여러 번의 국가 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국이 아닌 한국이나 서구의 일부 국가들을 최종 목적지로 결심했을 경우, 탈북 후 중국, 동남아, 몽골 등 제3국에서의 일시 체류와 같은 ‘지연된 탈북’²⁾을 경험하게 된다(오원환, 2011). 중국은 1990년 중후반에 중국 거주를 목적으로 탈북한 경우를 제외하면, 탈북 후 한국이나 서구권국가로 이동을 모색하는 임시거점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동은 가장 안전하고 시간이 짧게 소요되는 경로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에 이른바 북방루트라고 불리는 몽골과 러시아를 경유한 이동은 동남아시아를 거치는 남방루트에 비해 성공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태국을 탈출거점으로 하는 남방루트가 활용되어 왔다(오원환, 2011).

-
- 1)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탈북 경로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의 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만강(북동쪽)의 경우 수심이 얕고 강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은 결빙으로 인해 도강하기 쉬운 곳이다. 백두산은 중국 공안요원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산악지역이고 중국동포(조선족) 마을과 비교적 인접하나, 중국의 경계가 심하여 체포될 위험이 높다. 압록강은 수심이 깊고 넓은 강폭과 삼엄한 경비로 다른 경로에 비해 도강하기 어려운 곳이다. 결국 북한주민들은 탈출경로를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짓기보다는 국경경비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루트를 택하고 있다(자료: 김윤영, 강제소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2011).
 - 2) ‘지연된 탈북’은 중국의 강제력이 미치는 공간에서는 탈북자가 언제든지 발각되고 강제 복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탈북이 아니라는 뜻이다(오원환, 탈북 청소년의 정체성 연구, 2011).



출처: 오원환, 2011

[그림 Ⅱ-1] 북한주민의 탈북 후 이동경로

다. 탈북유형

탈북유형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탈북 목적에 따라 ‘완전한 북한 이탈과 북한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한 탈북’, 그리고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 단기체류로 구분하기도 하며(이우영, 2000), 왕래형, 장기체류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윤영, 2011).

김윤영의 분류에 따르자면, 왕래형 탈북은 1990년대 중반이후 식량과 생필품을 구입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귀향하는 경우이다. 이들은 체포될 위험성 때문에 가급적 혼자서 월경하여 한국인이나 선교단체 접촉을 가능한 자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후 단기간 내 귀환한다. 장기체류형 탈북은 탈북 후 중국내 사정에 여의치 않아 빠른 시간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정한 거주지 없이 은신생활을 하며 농사일과 벌목(남성), 잡일과 현지인과 결혼이나 여성의 경우 가정부생활을 하며 체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 후 한국행 또는 서방망명을 위해 중국대륙을 비롯해 동남아국가에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완전탈북자는 탈북과정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여 가족을 동반하여 탈북하면, 신변안전을 위해 신속히 중국대륙이나 몽골,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이동하여 해당 국가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5년 동안 체류하면서 선교단체나 NGO의 도움을 받아 한국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파악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2006년 국제위기 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는 다른 비정부기구의 보고와 중국 조선족과의 현지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 규모를 10만명으로 추정했다(인권백서, 2011). 2008년도에는 중국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하여 2-4만 명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중국 동북3성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와 탈북여성,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를 각각 5,688(최소 3,305~최대 9,109명), 4,737명(최소 2,741~최대 7,599명), 6,913명(최소 3,606명~ 최대 11,063)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코트랜드 로빈슨, 2010, 북한인권백서 2011, 383에서 재인용).

북한은 해외체류 탈북자를 대상으로 강제송환과 자진귀환 회유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주성하, 2011). 1990년 후반부터 탈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자 북한은 중국에 체포조를 급파하여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지원활동가, 탈북을 주선하는 브로커, 북한 정보를 유출하는 브로커 역시 체포대상으로 하여 체포 즉시 북한으로 강제소환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탈북자들이 주로 동북삼성지역의 조선족 거주지역에 밀집되어 있었으나 중국 측의 단속강화로 한족 마을 및 대도시 지역으로 이동”(북한인권백서, 2011, 384)이 일어났고, 2000년대 후반이후에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소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중국체류 탈북자규모가 급감했으며, 특히 2009년 말 화폐개혁 실시 이후 탈북현상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기존 탈북자가족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왔으며, 2010년 이후 국경경비대와 해안경비초소의 검열강화로 탈북과정에서 단속될 위험성이 커지면서 중구 이외에 러시아,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및 조선족 및 한족 등 중국인들의 불법이주지역 등 세계 전역으로 이동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북한인권백서, 2011). 탈북자가 급증으로 북한당국과 중국당국의 합동 단속강화로 강제소환 등 처벌이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로 “연변조선족 자치주를 중

심으로 중국체류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의 경우 최소 2~5만 명 선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윤영, 2011, 164).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이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상당수가 전문안내인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했으나 북한주민들의 불법 국경 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조직이 발생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기장에서 북한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북한인권백서, 2011).

탈북시도 중 북한 공안당국에 적발되면 강제소환되어 고문과 구금을 당하거나 사살되기도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에 성공할지라도 국경을 넘는 순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인신매매, 성매매,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현지국가나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윤영, 2011).

라. 탈북에 대한 태도

최동문(2009)은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온 북한체제의 특성과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성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6가지로 정리해주고 있다. 이는 첫째, 향후 통일과정에 선구자 역할 수행가능, 둘째, 자기중심적 태도로 인해 의사결정과정 중시하지 않는 경향, 셋째, 탈북사실에 대한 높은 자긍심으로 탈북 후 남한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당연시하는 태도, 넷째, 이분법적사고로 인해 다양하고 다원화된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장애, 다섯째, 북한사회 이탈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정성이 기회주의적인 태도나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남으로 인한 적응장애, 여섯째, 극도의 안전에 대한 욕구로 주어진 법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면 의무와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심리상태로 나타내고 있다. 즉, 이들은 “탈북을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화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한 것”(ibid. 11)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1인 독재체제를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온 용기 있는 사람으로 통일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ibid. 11)고 한다. 둘째, “강한 자아의식으로 자기중심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과정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

다”(ibid. 11)는 것이다. 셋째, “탈북사실에 대한 높은 자긍심으로 정부보호와 지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제공, 정착금 및 생계비 등에 대해 ... 당연시하고 있다.”(ibid. 11) 넷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흑백논리적 사고방식으로 “이분법적 사고와 급진적인 성향은 사고의 유연성과 점진적 변화, 그리고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의 적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ibid. 12)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은 불안, 실망, 우울과 희망, 기대감 등이 함께 나타나는 정서적 불안정 상태를 보인다.”(ibid. 12)고 한다 그리고 “심리적 불안정성은 기회주의의 태도로 나타나기도 하며, 타인에 대한 불신감, 정서불안, 성적집착, 지나친 자존감, 열등의식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ibid. 12)는 것이다. 여섯째, 탈출에서 정착하기까지 위협, 배신에 의한 고발로 강제소환을 당하는 등 한시도 안심 못 할뿐 아니라 누구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이지만 이들에게는 매우 절실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극도의 안전욕구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지만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한다(윤여상, 2002, 71-75; 통일부, 2007, 110-114, 최동문 2009, 12에서 재인용)

III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 | |
|----------------------------------|----|
| 1. 북한이탈여성 심리적 특성 | 21 |
| 2.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25 |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전문가 심층면접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고찰하였다. 우선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심리적 특성에 관하여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논하고 기존 연구의 통계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현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북한이탈여성 심리적 특성

가. 남한 정착 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개인의 심리는 개인과 사회속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 된다. 북한의 체제는 북한 여성의 심리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계획과 목표 아래 대부분의 비엘리트 집단은 맹목적인 집단주의적 실천과 이행을 강요당한다. 이러한 실천과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체제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표면상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실제 북한은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남성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가져야만 하는 가부장적 사회라는 감안하면 북한 여성은 가정에서의 가사노동과 더불어 사회 참여 면에서 노동력 착취로 인한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최선경, 2011).

또한 최근의 북한의 경제적 파탄은 북한 여성의 심리에 더 큰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경제위기는 1994년부터 더욱 더 심각해져 인구구조가 변화할 만큼 아사자가 늘어났다. 북한주민 식량배급 문제, 사회계층구조의 양극화, 지하경제의 팽창, 사회복지 체계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에서의 자녀 양육과 생계를 걱정하는 북한 여성의 심리적 고통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정우곤, 2006). 북한에서의 식량문제가 심각해지는 1990년대 말 북한여성들은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장마당이라는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다. 북한 남성들이 집과 멀리 떨어진 군부대에 있어 북한 여성들이 직접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고 중국 상인과의 교류가 많아졌

다. 그러한 교류 중 중국 시장에서의 장사가 상대적으로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정보 아래 북한여성은 중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일부는 원하는 식량을 구입하면 북한으로 돌아가나 장기 체류자로 남는 북한여성도 있었다(강차연, 2005). 장기체류를 위하여, 북한의 남편과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혹은 한인 노총각과 매매혼으로 연계되어 장기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다(이원용, 2003). 그러나 북한과 중국에서의 중복된 가정형성은 북한여성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야기시킨다(문숙재 외, 2000). 법적 효력이 없는 매매결혼의 이면에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성격 파탄자, 도박꾼 등인 경우 갖은 멸시와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여 정신적 및 육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다(강차연, 2005).

북한이탈 주민 중 중국거주 경험을 체험한 여성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는 한국 정착 이전에 이미 심각하다. 북한이탈주민 중 특히 여성은 중국에서 매매혼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성매매 및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신체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다. 또한 성매매에 제외되어 있는 북한 여성도 중국 거주기간 간병인, 보모, 식모 등의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들은 그러한 고통 외에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팽배해 있다(백영옥, 2002; 강차연, 2005, 25에서 재인용).

한국 정착 전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는 한국 정착 후 심리상태와 높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중국 거주기간 동안 인신매매와 성매매 피해자들은 그 당시의 수치심, 분노, 체념 등이 사라지지 않아 한국 정착 후에도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북한여성이 많다(김영자, 2000; 강차연, 2005, 25에서 재인용).

나. 남한 정착 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한국 정착 후의 북한이탈여성의 심리는 앞에서 언급된 한국 정착 전의 심리와는 다르게 새로운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결혼경험자인 경우 한국 사회 적응문제가 어려움으로 나타나 심리적 부담감으로 연계되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변화에 대한 심리

적인 부담, 중혼이나 동거로 인한 심리적 부담, 한국 남성과의 결혼 생활로 인한 심리적 부담 등의 부부관계 측면에서 심리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부관계 외에도 시부모 돌봄,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 직업 훈련 및 직장상황 등의 사회전반의 적응 면에서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한다(조영아·전우택, 2005).

최근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정착 후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둘째, ‘우울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 셋째,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이다(최선경, 2011). 이러한 구분에 따라 기존 문헌의 내용을 표로 구성했다.

먼저 결혼생활과 자녀양육에 관해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부담과 적응 어려움은 간접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상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Ⅲ-1〉 결혼생활과 자녀양육

저자/제목	내용
장혜경, 김영란(2001)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가족과 함께 한국 정착 후 탈북 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조기교육에 대한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이질감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에게 교육적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 인한 무력감과 자녀와의 갈등이 야기됨.
이기영, 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간의 가족관계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가족과 한국 정착 후 자녀관계가 부정적임. 적절한 자녀 교육방법을 발견하지 못함.
조영아와 전우택(2005) 탈북여성들의 한국 사회적응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부부역할 및 지위 변화로 인한 한국 남편에 대한 기대(여성 존중, 비권위적인 측면)에 북한 여성들은 만족하지 못함.

다음으로 우울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은 직접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상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들도 전반적으로 우울증이 발견된다는 점과 극단적인 경우 정신질환이나 자살시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부분 참조).

〈표 Ⅲ-2〉 우울, 외상과 같은 정신건강

저자/연도	내용
최빛내.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 강제복송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북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는 집단은 준거집단에 비하여 신체화, 우울, 불안, 적대감, 편집증을 보임.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의 관계	북한이탈여성들의 방어기제는 합리화, 부정, 회피, 억제, 왜곡, 유머, 이타주의의 빈도가 높음. 이는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충격에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음.

마지막으로 직장에서의 차별, 정체성의 혼란 등 북한이탈여성이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경험할 수 있는 사항은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상황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표 Ⅲ-3〉 지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진로장벽 및 정체성 문제

저자/연도	내용
조화성(2011) 북한이탈여성의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연구 성원권의 시각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여성이 차별을 제일 받는 장소가 직장 으로 인식하고 있음.
강혜성(2011)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탈북 여성들은 정체성이 한국도 북한사람이 아 닌 중간적인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성 을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함.

2. 북한이탈여성의 심신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한국 정착 전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 정착 후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상황에 관한 기존 문헌을 통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실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를 통해 이들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고찰하였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의 활동(이후부터 새조위)에서 2011년 6월 20일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 이용환자)를 방문한 북한이탈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여의사를 밝힌 병원 내원 환자 조사를 토대로 나온 결과이며 자료수집방법은 환자와 일대일 대면 조사이다.

가. 남한 입국 전 건강상태

한국 입국 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아주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 남성 중 17%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에는 11%로 나타났다. ‘ 좋음’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 남성 중 49%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34%로 나타났다. ‘나쁨’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 남성 중 27%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40%로 나타났다. ‘매우 나쁨’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 남성 중 7%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15%로 나타났다. 한국 입국 전의 건강상태의 나쁨(매우 나쁨+나쁨)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이탈남성보다 21%p 차이로 더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4〉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전 건강상태

	북한이탈남성	북한이탈여성
아주 좋음	17%	11%
좋음	49%	34%
나쁨	27%	40%
매우 나쁨	7%	15%

출처: 신미녀, 2011

나.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에 ‘건강하다’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남성 중 25%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픈 곳이 많다’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남성자 중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여성 중 45%로 나타났다. ‘이유는 모르지만 많이 아프다’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남성 및 북한이탈여성 중 모두 28%로 나타났다. ‘중병환자다’에 응답한 비율은 북한이탈남성자 중 5%인 반면에 북한이탈여성 중 8%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이탈남성보다 6%p 차이로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다. ‘아픈 곳이 많다’인 경우 북한이탈여성이 2%p 차이로 북한이탈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병환자인 경우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이탈남성보다 3%p 차이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후 건강상태

	북한이탈남성	북한이탈여성
건강하다	25%	19%
아픈 곳이 많다	43%	45%
이유는 모르지만 많이 아프다	28%	28%
중병환자다	5%	8%

출처: 신미녀, 2011

다. 객관적 건강상태

북한주민은 한국과 현격한 신체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며 남성 흡연율이 높고 약물오남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의 구타 및 상해로 인한 신체적 외상경험,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체증상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원인은 심리적인 측면이 주요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위장병은 13.4%로 한국인의 두 배에 해당되었으며 결핵은 한국인의 12배인 3.8%로 나타났다(김중홍, 2010).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정착이전 인신매매와 성폭력을 경험하였고 중국에서 수술로 제공 되어진 루프삽입은 만성 골반 내 염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식량부족으로 인하여 영양실조에 시달리다 한국의 풍족한 식사는 갑작스런 영양과잉으로 인하여 비만과 성인병에 노출되는 가능성이 높다(박상민, 2010).

북한이탈주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르면(김병창, 2009)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1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11.4%),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1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11.2%),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9.7%), 호흡기계통의 질환(7.6%), 신생물(7.6%),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순환기계통의 질환(4.6%),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신경계통의 질환(4.5%), 피부 및 피부조직의 질환(3.5%), 정신 및 행동장애(2.4%), 귀 및 꼭지돌기 질환(1.9%),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1.4%), 임신 출산 및 산후기(1.2%),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0.4%),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0.3%) 순으로 나타났다(김병창, 2009).

〈표 Ⅲ-6〉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주진단 순위

(2006년 5월~2008년 9월)

순위	분류	환자 수	%
1	소화기계통 의 질환	254	11.5
2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253	11.4
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247	11.2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239	10.8
5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215	9.7
6	호흡기계통의 질환	168	7.6
7	신생물	105	4.8
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02	4.6
9	순환기계통의 질환	99	4.5
10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	96	4.3
11	신경계통의 질환	88	4.0
12	피부 및 피부조직의 질환	77	3.5
13	정신 및 행동장애	52	2.4
14	귀 및 꼭지돌기 질환	41	1.9
15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31	1.4
16	임신 출산 및 산후기	26	1.2
17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8	0.4
18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7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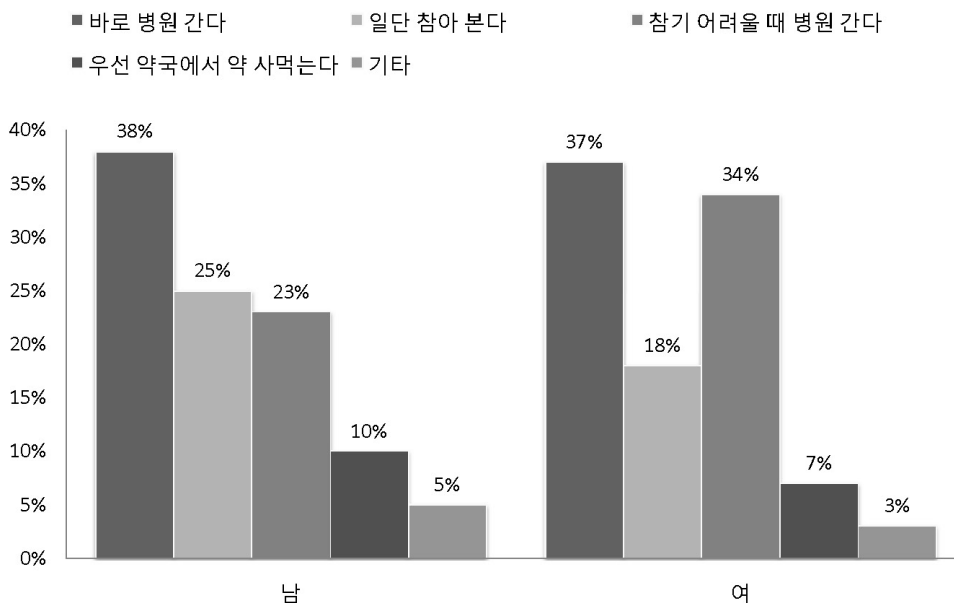
출처: 김병창, 2009

라. 애플 때 취하는 조치

한국 정착 후 ‘바로 병원 간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38%, 북한이탈여성 중 37%로 나타났다. ‘일단 참아본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25%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18%로 나타났다. ‘참기 어려울 때 병원에 간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23%인 반면 북한이탈여

성 중 34%로 나타났다. ‘우선 약국에서 사먹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10%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7%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이탈남성 보다 ‘참기 어려울 때 병원에 간다’에 응답한 비율이 11%p나 높았다.

전체 응답자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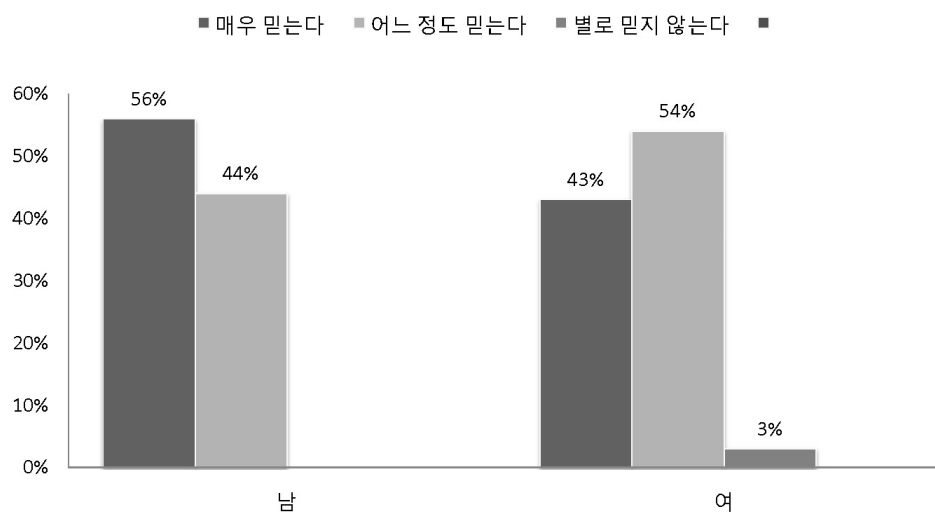
[그림 Ⅲ-1] 성별 북한이탈주민이 아플 때 취하는 조치

마. 남한 병원 신뢰 정도

한국 병원 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믿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56%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43%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믿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남성 중 44%인 반면 북한이탈여성 중 54%로 나타났다. ‘별로 믿지 않는다’에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여성 중에서만 3%로 나타났다. ‘매우 믿는다’에 응답한 비율측면에서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이탈남성보다

13%p나 낮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진료상의 어려움은 기본적인 의료학적 언어의 소통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지나친 기본적인 의료검사에 따른 한국의 의료진단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자료: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그림 Ⅲ-2] 성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병원 신뢰정도

바. 북한이탈여성의 정신 건강

지금까지 한국입국 전·후의 주관적 건강상태, 객관적 건강상태, 한국의 의료서비스 이용 및 신뢰 정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북한에서 이미 어려운 상황을 겪은 후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제3국에서의 난민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심신의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당연히 자신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자각하고 있고 한국주민에 비해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신체화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심리증상이 많으며 심리적 불안 등이 신체증상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하지현, 2009). 이들의 한국 정착 이전의 심리적 외상, 북한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과 관련된 상당한 스트레스 경험은 한국 정착 후에도 정신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국 한국 정착을 어렵게 한다(정진용, 2011).

1)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적된 질환으로 김병창·유시은(2010)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의 유병률은 8.7%였으며, 여성(10.2%)이 남성(4.4%)보다 2배 이상이나 높았다. 김병창(2010)은 이처럼 난민에 준하는 주민들의 높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유병률을 삼중외상 패러다임으로 설명한다. “이주민이나 난민의 경우 외상경험을 할 곳을 원거주지, 이주과정, 정착과정이라는 최소 3곳 이상의 외상경험 장소를 가지고 있다”(ibid. 24)는 것이다.

2) 우울증과 불안감

많은 연구에서 우울증은 여성에게 두드러지는 증상으로, 북한 이탈기간이 길었던 주민일수록 우울증상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진용,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우울증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나 사회적 지지가 떨어질수록 우울증상이 강해지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증은 저소득집단과 일반주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엄태완, 2005, 312)고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 결과도 한국 입국 전의 정신적 충격과 북한에 남겨진 가족의 그리움과 죄책감 등은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연계되어지고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정착하였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이 많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거나 인신매매 경험 등으로 분노조절, 폭발, 잠재 분노 등이 많음(시민단체3).’

‘한국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종교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어려서부터 사상체제에 세뇌되고 불신교육의 만연으로 현재 정신적 혼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음(시민단체 활동가2).’

‘탈북자가 겪는 다른 사상과 체제에 대한 부담감, 문화차이, 혼란감, 무직의 경험이 다른 이주자의 그것과 다른 이유는 인신매매나 생명을 담보로 겪는 것이기 때문임. 북한이탈여성의 대부분 우울증을 겪고 있고, 병원 검진에서는 나오지 않는 병이 많음(시민단체 활동가2).’

‘중국에 아이 두고 온 여성은 정신분열(도 있으셨음)(시민단체 활동가1).’

‘중국에 아이가 있거나 두고 온 가족 북한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깔려있다고 보여짐.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으나 주변에 한국사람들과 관계에서 힘들면 문제가 확 드러남. 아이문제, 자녀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 많음(시민단체 활동가1).’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북한생활의 영향으로 현재도 감시당하는 생각이 들거나 간첩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음. 더욱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경우 불안감이 더 심함(시민단체 활동가2).’

또한 한국 입국 후에도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주택을 배정받아 지역에 살 때 대체로 불안 우울은 기본적으로 있음. 하나원에서 증상도 있었는데 결국 입원을 시켰던 젊은 여성 있음. 넘어온 과정에서 같이 왔던 사람들에게 상태 물어보면, 수용소에 오기 전에 만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함. (한국에)와가지고 여러 가지 긴장이 풀려 그러한 증상들이 확 나오는 것 같음(시민단체 활동가1).’

‘한국사회와 사람들에 사기나 (성적)유린을 당해 불신과 경제적 문제로 우울증과 자살을 겪는 등 다양한 유형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증상과 사연을 숨기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음(시민단체 활동가2).’

‘저희 지역에는 우울도 많고 자살도 가끔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14단지 몇 동 십 몇 층에서 떨어졌는데 12시에 소리가 나고 하는 등 소문이 도는 동네기 때문에 외부에 나와서 사람사는 동네가 못 되는구나 생각하실까봐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워..(시민단체 활동가7)’

3) 신체화 증상

신체화 장애는 우울과 불안을 신체증상으로 표현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몸 어딘가가 아프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심리적 방어기제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에서는 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적 증상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심리검사의 일종인 다면인성검사(MMPI)에서 신체증상과 관련된 척도인 Hs(건강염려증: Hypochondrisis)척도

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보고해주고 있으며(김현아·전명남, 2003, 143),” “부적절하거나 설명되지 않은 신체증상을 호소하고, 실신이나 과호흡과 같은 유사신경학적 증상이자 전환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빈도가 높았다(안은미, 2007, 하지현, 2009, 313에서 재인용).” “MUS란 의학적 으로 특정한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나 진장적 논리로 는 추론이 불가능한 모호하고 불특정한 증상의 모음을 뜻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북한이탈주민 클리닉에 방문한 환자의 주진단의 10.8%가 MUS로 나왔다.”(하지현, 2009, 313)고 보고해주고 있다. 신체증상이 정신증상과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체화 장애는 높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그러나 이러한 우울증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에서 정신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비교하여 질병으로 간주되지 않고 격리수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에서의 치료를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잘 낮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병원을 가지 않으려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북한에서 정신병은 격리 수용 대상이므로 한국에서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도 숨기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계속적인 설득으로 정신과에서 진료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음(시민단체 활동가5).’

‘북한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거나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 잘 가지 않음. 그러나 어머니의 심리적 치유가 되어야만 가족과 부부, 아동이 모두 행복할 수 있다고 봄(시민단체 활동가2)’

‘우울증 및 정신질환 증상 관련 사연을 숨기거나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음(시민단체 활동가2).’

한국의사는 왜 그러냐고 ..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고 하지만 그래도 ... 왜 내가 아픈데 방아 들이지 않는지 호소 많이 하는 편임 (시민단체 활동가1)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게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대처하는 방식을 찾는 것 대신에 술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여자 술 마시는 것이 아주 흔한 문화로 교육을 나가면 술을 꼭 요구하는 경우 있음. 남성들도 술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고 여성분들도 밥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문화임. 문제는 언제든 지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힘들 때는 술을 한 병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심. 자기들 스스로 정서적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하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우울하고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방법, 누구에게 상담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름(시민단체 활동가4).’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특성과 심신건강 및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기존 문헌의 연구내용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착 전의 북한체제의 어려운 사회적 상황 및 한국 정착 후의 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수준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여성에게 대한 심리 정서적 지원 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IV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1. 국가 주도 프로그램	37
2. 시민단체 프로그램	39
3.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	47

1. 국가 주도 프로그램

북한이탈여성의 심리건강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민단체와 정부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에서는 정착 교육의 일환으로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하나센터에서 거주지 기반 지원의 일환으로 심리안정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국가 주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가. 하나원과 하나센터

하나원에서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 전원에서 실시하는 12주간에 걸친 420시간의 교육 중 심리 관련 교육은 2시간씩 4회로 이루어진다. 이는 “마음 알기,” “자기 알기,” “행복한 삶,” 그리고 “더불어 살기”라는 제목인데 각각 심리검사, 성격검사, 심리 적응, 그리고 한국 사회 이해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이탈 과정에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심리지원의 성격을 띤다. 이 프로그램은 모두 한 기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강의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집단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기 힘든 심리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육생에게는 개인상담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원에는 심리상담과 강의를 하는 상담 주무관 3명, 수련생 2명, 그리고 정신과 의사 2명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생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개별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탈주민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주일 이내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심리검사를 진행한 상담원은 검사 결과를 측정하여 정상 범주에서 크게 이탈이 의심되는 교육생에게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을 제안하여 일과 시간 외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일과 시간 외에도 교육생들은 대체로 시간을 내기 힘들어 3회 이상 장기적으로 개별상담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상담원들의 의견이다. 또한 하나원에서는 그런대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던 사람도 사회에 나가 팍팍한 현실에 부딪치게 되면 여러 가지 심리 불안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 하나원에서의 심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전국 30여 곳에 설치된 하나센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상주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을 수료하고 사회로 나선 북한이탈주민은 자기가 거주하는 하나센터에서 6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있다. 심리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 중에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나.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취업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통일학교의 과정에서 한마음 축제 등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 유대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민회와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간의 가족결연을 추진하고 도민의 날과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시군민회 총회 등의 도민행사에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하여 사회에 편입하도록 유도한다.³⁾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여성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 수료 이후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초기 정착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개한 2012년 주요 사업 중 하나는 여성쉼터이다. 이는 곧 지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데 중요성을 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3) 이북5도위원회는 통일학교의 일반과정으로 교육강좌, 찾아가는 통일학교, 한마음축제, 가족결연, 도민행사 참가지원(도민의날,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등을, 상-하반기에 각 12회 운영하는 전문과정으로 요양보호사반 등 6개 취업지원과정과 심리상담반 등 4개 소양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한편, 5개월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업체 연수교육도 실시한다. 출처: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지원.” <https://www.ibuk5do.go.kr/resident/society.asp> (검색일: 2012년 11월 17일).

생활적응과 산모 및 아이돌보미 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이에 덧붙여 전화와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상담사를 활용한다.⁴⁾

2. 시민단체 프로그램

많은 시민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공동협력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보고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프로그램을 찾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개선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2011년과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사업 중 심리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과 추진단체 및 지역은 <표 IV-1>과 같다.

4) 현장 활동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전문상담사는 행정이나 직업 등에 초점을 맞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리상담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탈북관련사업 추진단체 자문회의.’ 2012년 11월 13일.

〈표 IV-1〉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북한이탈여성 심리 프로그램 공동 협력 사업

연도	사업명	단체명	지역
2011년	차세대 탈북여성 멘토링	(사)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서울
	초등학생이하 자녀를 둔 탈북여성을 위한 '학부모 아카데미'	(사) NK 지식인연대	서울
	탈북여성멘토링 및 치유상담 지원	(재) 인천 새터민지원센터	인천
	새터민 여성 멘토링 프로그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두레방 공동체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부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행복한 교실	전주 YMCA	전북
2012년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탈북여성 코칭 프로그램	(사)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서울
	사회기반 / 문화 인프라 체험에 의한 북한이탈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	(사) 한국그린서비스협회	서울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	광주 새터민지원센터	광주
	탈북어머니 정서회복을 위한 멘토링과 '탈북어머니학교' 운영	남북사랑네트워크	서울
	북한 이주민을 위한 행복한 한국 아줌마 만들기 프로젝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협의회	경북
	남북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부산
	탈북여성개별상담, 집단상담, 야유회	(재) 인천 새터민지원센터	인천

자료: 여성가족부. “2011년도 선정사업 목록: 여성인권증진 및 취약계층지원”, “2012년 공동협력사업 선정사업: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지원”.

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은 1988년 설립된 통일운동단체이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으로는 코칭 프로그램이 있고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과정이 있다. 또한 국립의료원, 충남대 병원과 인

천 적십자 병원에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새조위 안에도 상담실을 운영하여 의료, 가정, 주거, 취업 등 전반적인 상담을 실시하며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먼저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탈북여성 코칭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도록 꾀한다. 20차 이상의 교육 과정을 통해 참가자들은 새롭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법과 경청하는 법을 익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코칭하여 이끌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운다. 또한 자신의 인생에 고마운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를 통해 과거 힘들었던 경험에서 얻었던 불안감과 우울 등을 떨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한다. 이러한 코칭 프로그램은 정기적이며 장기적으로 운영되어 참가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안정된 심리상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집단 상담과 함께 개인상담인 ‘북한이탈주민여성 정서안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상담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신과 전문의가 내담자와 면대면 상담으로 구성된다.

다른 한편, ‘북한이탈주민 코치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 된다. 이 과정은 북한이탈주민 코칭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동료상담원 양성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참가자들이 코칭 교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스스로 코칭 프로그램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취지의 코치 양성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 출신보다는 자신과 처지가 비슷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동료상담을 더 선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남북주부모임이 개최된다. 2011년 4월 열린 결성식에서, 신미녀 새조위 대표는 “서로 잘 모르던 남북 주부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예행연습”이며 “주부들이 주변 사람에게 이러한 경험을 전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모임의 취지를 밝혔다. 남북주부모임에서 북한이탈여성은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쌍방향적이고 일상적 교류의 주체로 인식되

며, 구체적으로 각 사회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논의나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면서 겪었던 문제들에 대한 토론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 등 역사적으로 돌아볼 만한 장소에 대한 견학을 겸한다. 아울러,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강좌도 개설하였는데, 북한전통공예를 이용한 새터민 여성창업지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나. 인천새터민지원센터

5년 전 개소한 인천 남동구지역 센터로 노인·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는 전국에서 새터민이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약 1400여명으로 집계된다.⁵⁾

북한이탈여성과 관련해서는 4년 전부터 구청지원을 통해 원예치료를 하고 있다. 15명을 그룹으로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농사에 익숙하고 자연친화적인 사람이 많아 만족도가 높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를 느껴 작년부터 여가부 지원을 받아 북한이탈주민 중 코칭이나 사회복지 관련 공부한 사람을 연계해 월2회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더 자주 접촉하고 있으며, 30명을 그룹 별(조선족 남편 가정, 한부모 가정, 알콜 문제 가정, 기타 장애 가정)로 나누어 그룹상담과 개별 상담 모두 진행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작년의 문제가 해결된 대상자는 심화과정에 있고, 그 외는 현재 그룹상담으로 진행되었고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 광주 새터민 건강복지센터

광주 새터민건강복지센터는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멘토링 사업은 북한이탈여성에게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사회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여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멘티와 멘토의 상호접근성을

5) 지인의 집에 임시로 함께 지내는 경우 등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16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리하여 북한이탈여성 20명과 남한여성 20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멘토인 남한여성 참가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멘토 교육에 참석하여 북한이탈 여성과 새터민 상담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월1회 멘토-멘티 합동행사를 개최하는데, 6월에는 영화관람, 7월에는 고적답사, 8월에는 진로탐색검사, 9월 진로탐색, 10월 공예작품 만들기, 11월 지역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멘토-멘티 간의 주1회 전화 상담과 월1회 가정방문 및 대면 상담이 실시된다.

라.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

부산 YMCA 새터민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두레방 공동체’ 사업을, 그리고 2012년에는 ‘남북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중에서도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두레방 공동체’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두레방 공동체는 북한이탈여성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지역 여성과 북한이탈여성 각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결연체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동거동락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또한 사랑가족활동과 남북음식 나누기, 노숙인 배식 봉사활동, 역사 탐방 등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이 북한 음식인 세치네국(추어탕)과 꼬리떡(절편)을 직접 만들어 부산진역 광장에서 노숙인 250명에게 배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행사에 참가한 북한이탈여성은 한국 정착과정에서 전적으로 수혜적 입장이었던 자신이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남북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가 행복한 세상’ 사업의 경우 2012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지원을 담당할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40대 이상 육아 경험을 가진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육아 및 출산, 자원봉사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기초교육을 받은 시민활동가는 부산

YMCA를 통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여성과의 결연을 맺는다. 그리고 11월까지 ‘마음으로 하나 되는 캠프’와 임신출산육아교실, 문화체험, 사랑가족활동 등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이 육아 및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고 지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 남북사랑네트워크

남북사랑네트워크는 2012년 9월부터 탈북어머니 정서회복을 위한 멘토링과 ‘탈북어머니학교’를 운영하였다. 주1회 강의를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탈북 어머니학교’는 탈북 어머니의 정체성을 높이고 정서회복에 일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체성과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된다. 즉, 3주에 걸쳐 ‘건강한 관계 형성’, ‘내적 치유’, ‘아내의 역할과 자녀교육’을 주제로 자체 제작한 ‘나는 어머니입니다’라는 교재를 활용하여 강의를 펼쳐지며, 마지막 주에는 1박2일간 쉼을 위한 여행을 떠난다. ‘탈북 어머니학교’는 9월과 10월에 각각 1-2차로 진행되었다. 기수마다 10명 정원제로,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면접 과정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한다.

바. NK 지식인연대

사단법인 NK 지식인연대는 2011년부터 ‘학부모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 ‘학부모 아카데미’는 2011년 5월 15일부터 2011년 8월 5일까지 6차에 걸쳐 제1기 교육을 운영하였고, 2011년 9월부터는 제2기 교육을 시작하였다. 학부모 아카데미의 운영 방식은 강사들의 강의와 그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이후 서로 소통하는 자리로 구성된다. 더 나아가 각각의 과정이 끝난 후 수료식을 통해 참가자들은 교육과정에 대한 서로의 소감을 밝힌다. 또한 수료식이 끝난 후 서울의 주요 명소인 63빌딩과 어린이대공원, 청계천 등을 답사한다.

‘학부모 아카데미’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2011년 제1기 교육과정을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5월 15일의 제1차 교육에서 ‘한국의 교육제도 이해’라는 제목으로 서울지방교육청 장학관이 강의하였고 25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참가하였다. 5월 29일의 제2차 교육은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나서 ‘아동발달과 인성교육’ 및 ‘효율적인 방과후 활동’에 관해 강연하였다. 제3차 교육은 6월 12일에, 제4차 교육은 6월 26일에 각각 진행되었는데, 이 때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생활과 교육과정’ 및 ‘자녀교육과 학부모 역할, 아동의 생활적응력 향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학교생활과정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학교생활을 잘 도울 수 있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7월 10일의 제5차 교육에서는 ‘탈북 학생의 문제점 및 해결방법’에 대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집중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삼흥학교의 현직 교장이 연사로 나서 탈북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부모와 아이들의 문제점과 해결과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5일에는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여, 교육 참가자들이 그 동안 탈북아동의 양육과 교육에서 필요한 서로의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다.

사. 한국여성경영자 총협회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는 ‘차세대 탈북여성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차세대 북한이탈여성에게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 지도자와 여성 경영인의 인생 경험과 기업 경험, 지식을 전파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직업선택과 사회적응 및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2011년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사단법인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추진한 이 프로그램에는 북한이탈여성 30명이 멘티로, 여성 기업인 30명이 멘토로 참여하였다. 여기서 멘토와 멘티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북한이탈여성이 직업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2011년 9월에 출범한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북한

이탈여성의 심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첫 번째, 남북여성합창단 ‘여울림’은 남한여성과 북한이탈여성이 함께 합창을 통해 상호간의 이해와 소통을 도모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장벽을 넘어 평화를 실천하는 여성들의 연대체로서 사회문화적 통합을 추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두 번째, 또 다른 사회문화적 활동으로 ‘남북여성문화제’를 개최하였는데 2012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금 후원을 받아 여의도 한강 유람선에서 평범한 남북여성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하여 ‘선상에서 띄우는 희망의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남북여성문화제를 열었다.

세 번째, 정기적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와 현장활동가, 그리고 북한이탈여성들이 함께 진행하는 ‘여인지사 포럼’이다. 여성과 평화, 인권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격월로 열리는 포럼은 2012년 4월에 ‘북한 여성의 경험, 어떻게 듣고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2년 6월에는 ‘탈북여성의 여성주의적 인권: 이성관계 중심의 경험과 대응’, 그리고 8월에는 “일다” 기사를 초청하여 남과 북의 동행에 관한 이야기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고민과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네 번째,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이다. 2011년에 공릉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새터민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그리고 광주새터민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광주전남 새터민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을 출간하였다. 기존에 발행된 대부분의 간행물이 북한이탈주민 남녀 모두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일상생활지침서’의 성격을 가진 반면, 두 가이드북은 북한이탈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광주전남 새터민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한 내용에 무게를 두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마지막으로 2012년 6월부터 시작한 ‘탈북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여성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매뉴얼 제작사업’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아 빈번하게 발생한다

는 문제의식에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인권 관련 전문가들을 필진으로 하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진되었다.

3. 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국가 혹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난한 이탈 과정을 겪고 한국에서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하는 북한이탈여성의 마음의 상처와 불안을 치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보완 필요

먼저 국가 주도형 프로그램은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의무교육이 중심이 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수혜를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이 교육은 비슷한 시기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특성이나 성별 특수성을 고려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에게 해야 할 많은 교육 중의 일부로서 최소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여성의 쉼터를 운영하여 보완하고 있지만 이는 예방보다는 사후 차원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센터의 상담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지에 정착한 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정착한 후에는 개인의 속성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하나원에서 일괄적으로 행해진 지원과는 달리 맞춤형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60시간이라는 의무 시간, 그리고 개인적 속성에 따라 상담을 꺼리는 사람들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하는 상담원은 한국

적응을 위한 직업이나 사회 현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나. 시민단체 프로그램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이러한 국가주도형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에서 북한이탈여성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멘토링 프로그램, 코칭 프로그램, 남북 주민 만남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주로 집단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생경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안내하고 지지해 줄 인적 지원 기반이 없는 이들에게 한국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더 나아가 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심리 안정을 얻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심리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사회의 북한 사회와는 다른 부모 역할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 등의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집단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상담 프로그램도 존재한다.

1) 안정성과 지속성의 문제

이러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상담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심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심리적 불안감이 보통 사람보다 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심각한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자 대상의 의학적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시민단체 활동가 1)”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적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을 정신질환자로 낙인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꺼리고 있고 또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시민단체 활동가 5)”에서 이러한 중간적인 접근은 일단 바람직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안정성과 지속성에 있어 문제에 직

면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이다. 이들은 시민단체 자체 예산으로 혹은 여성가족부나 다른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은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적은 예산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예산의 지속성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의 공동협력사업 예산인데 이는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올해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계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일회성 혹은 단기 프로그램의 성격을 띤다. 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좀 더 심각한 심리불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대부분 6개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그램 운영자들에 의하면 한 대상자로 한 달 그 이상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

본 기관에서 부모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장기로 해보았는데,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중간에 탈락이 많았고, 직업을 가져서 나가기도 하고, 중국에 두어 달 체류하는 경우도 있으며,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오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문제였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길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프로그램은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고, 그것만 하고 끝나버리니 관계가 지속이 안 되고 더 이분들과 관계 회복이 안되고 있다. 관계지속이 되었을 때 마음을 열어놓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누군가가 이끌고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시민단체 활동가 1).

2) 상담원 확보의 어려움

다음으로 상담원의 자질 문제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상담가는 두 종류인데 한 부류는 일반 상담학 전공을 한 전문상담가이고 다른 부류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동료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는 동료상담원이다. 전자의 경우 상담학을 전공하고 학계에서 인정하는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상담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

해가 없으면 상담을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반면에 북한 출신의 상담사의 경우 상담사로서의 능력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들은 새조위의 북한이탈주민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따거나 사이버대학 심리상담사, 사회복지과 교육을 받을 사람들로써 단기간의 교육으로 실무에 배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의 신분 불안정, 또 탈북자로서의 경험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꼭 맞는 상담가가 부족한 상태이다. 전문상담가들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이해교육이, 북한 출신 상담가들에게는 상담의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이탈주민상담사에게서 받는 상담의 만족도는 73.8%로 높게 나타났지만 하위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상담에 대한 개념과 상담사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둘째, 전문상담사를 한 곳을 배치할 상담 시설의 통합, 셋째 상담 인력의 전문화 및 상담분야 세분화, 넷째, 상담기관의 통합, 다섯째, 지역사회에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 및 활성화(노인숙 외, 2011, ii)”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심층 프로그램의 필요성

다음으로 많은 현장활동가들은 심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층 프로그램이란 앞에서 말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하지만 북한이탈주민과 심리적 끈이 형성될 수 있는 깊이있는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현장활동가들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의 유인책은 대부분 프로그램에서 지급되는 현금이라고 말한다. 즉, 교육생들은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의 금액에 따라 강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의 프로그램 내용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그들의 깊은 심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 도와주는 한국 사람과 도움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하는 한국 주민의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Ⅳ.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리 안정과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 51

관심과 봉사정신을 요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안정 지원은 북한이탈여성이 처한 현실과 심리적 상황, 그리고 우리의 정책 인프라와 시민사회의 형편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V

북한이탈여성 심리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

- | | |
|--------------------|----|
| 1. 지원 방향 | 55 |
| 2. 프로그램 제안 및 개선 방안 | 56 |

1. 지원 방향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은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성,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 시민사회 활동이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한국 사회의 다른 정책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중복적이고 과도한 지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정책대상자를 위한 예산을 무한히 늘릴 수는 없다. 북한이탈여성을 위해서도 기존의 정책인프라를 십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안정 지원은 새로운 단체나 조직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정책대상이므로 이 두 부처의 산하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부처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처 조직과 함께 현재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시민단체 사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든 대신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결과를 정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상담사 훈련, 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시민단체 사업을 통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업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특성을 십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육아기의 여성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비상시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평상시 보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여성인 경우 퇴근 후 보육지원을 받을 수 없어 프로그램 참여에 장애를 안고 있다. 현재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결하여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여성 대상 프로그램을 위한 건강가정지

원센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2. 프로그램 제안 및 개선 방안

가. 심층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1) 필요성 및 목적

기존 심리 지원 프로그램들을 분석한 결과 현재는 주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길어야 6개월 정도의 단기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개별 상담을 시행하는 곳도 있으나 북한이탈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은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상황에 맞춘 심층 개인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응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입국 과정을 통해 외상경험, 불안감, 초조함, 죄책감, 우울증 등 풀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억눌린 감정... 두 번째, 한국사회 적응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감, 가족에 대한 갈등, 북한 동료들과의 갈등, 북한가족에 대한 죄책감 등(시민단체 활동가 5)”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기간 및 주기

이 프로그램은 개별상담으로 이루어진다. 기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상담대상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한다. 하지만 오래 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한 시기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방문주기도 정해진 것은 아니나 처음에는 주 1~2회로 시작하여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월 1~2회로 조정할 수 있다.

3) 관점⁶⁾

이 프로그램은 심리치료나 정신치료가 아닌 심리상담으로 기획되었다. 따라서 상담대상자의 오작동적 심리증상이나 병리증상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하여 내담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 자존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관한 한 내담자가 문제해결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상담자는 궁금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한다(상담자가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찾아 주고 조언한다는 자세가 아니다).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내담자 만큼 절실하고, 오래 생각하고, 전후좌우 형편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를 인정하는 상담자의 자세이다.

이러한 관점의 저변에는 모든 사람은 인정받길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삶이 나아지길 원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고 자신이 누구를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한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인간 정신 속에 내재하는 고유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정과 그 역량을 최대화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희망, 기여, 존중을 주는 것을 상담자의 역할로 보는 것이다.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담자가 속내를 털어 놓기도 쉽다(예컨대 북한이탈 주민의 탈북과정 중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할 수 있었나).

대상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내담자를 바라보는 인식으로 그의 문제나 병리나 부족한 점을 일단 접어두고 평소에 조금이라도 잘 되었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 할 수 있었을 때, 희망적이었을 때를 질문해 주어 찾아내게 하고, 상기 시켜주어 그때는 어떤 상호작용이었었나, 지금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었나를 통찰하게 하여 적응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해결중심의 상담은 과거로부터의 원인 분석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잘 적응하도록 돕고 현재 살아가는 방법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내

6) 이 부분은 상담가 12의 집필임

담자에게 다가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북한이탈주민은 탈출에서 대한민국에 정착하기 까지 많은 외상, 학대, 위기, 억압, 고통 등 역경을 비교적 많이 겪었기 때문에 상처가 많고 혼란이 많을 수 있지만 뒤집어 강점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역경을 통한 지혜, 극복과 대처의 기술, 자부심 등이 더욱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변화를 향한 힘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상 라포 형성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릴 수 있으나 강점관점 해결중심의 상담 접근은 라포 형성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존중으로 신뢰감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많이 다르고 그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그것 또한 그들만의 강점임을 강조하여 역량 강화와 희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된다.

4) 조직 및 상담원 양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북한주민지원재단의 여성쉼터,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 등에 설치한다. 또 북한이탈여성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 조직(새조위, 새터민지원센터 등)에 설치할 수도 있다. 이 조직 안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은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센터” 혹은 “북한이탈여성 정서지원실” 등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조직에 상담원을 파견하고 이들의 훈련과 재교육을 책임진다.

상담원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에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북한이탈여성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오랜 경험이 있는 한 시민단체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우려한다.

“지역의 곳곳에 심리상담소가 있고 연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일반 상담자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한 상담사는 심리상담사가 아닌 생활상담사로 심리상담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동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만나는 것은 한편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마음을 여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상담사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본인 스스로의 심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위험할 수도 있다.”(시민단체활동가 9)

현재 북한이탈주민 상담은 생활, 직업, 가족, 동료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으로 심리상담 전문성과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모두 가진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함에 있어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상담가를 재교육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가용 대상은 두 집단인데 하나는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1,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상담의 전문성은 있으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이 사람들을 북한이탈여성 전문 상담가로서 모집하여 북한이탈여성 관련 교육을 시킨다. 다른 집단은 북한주민지원재단이나 새조위에서 양성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상담가가 있다. 새조위의 경우 자체의 양성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료 후 3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는 높으나 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이 요구된다.

상담원 양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들의 관리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들은 재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한다. 이들이 실제 상담사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이를 상담하고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기회나 혹은 동료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 상담에 투입된 후 월 1~2회 워크숍을 통해 이들이 상위 전문가와 만나 상담경험을 보고하고 자문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인 심층 컨퍼런스를 갖는다. 각 상담센터의 특별한 상담사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방법을 같이 모색한다. 이는 분기별로 실시한다.

5) 상담 매뉴얼 개발

상담원 교육과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상담 매뉴얼 개발도 필요하다. 이는 상담원 교육과 슈퍼바이징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심리 프로그램 운영

1) 필요성 및 목적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는 심리 지원 요소가 빠져 있다. 직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있으나 직업훈련 시에 걸어서는 심리적 문제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시작하면 북한에 비해 노동 강도가 세어서 일 자체도 힘들고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끼고 언어차별에서 오는 심리적 위축도 많다. 이와 관련해 취업하여 남한 사람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 심리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공 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숙박도 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심리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

대인관계, 분노표현, 우울, 알코올문제, 문화충격과 관련한 심화 프로그램이다. 다른 직업 교육과 함께 집단 교육과 코칭,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개인 상담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받는 여성들로 이루어지는 자조프로그램 형성을 권장하며 운영도 지원한다. 자조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다. 취미 동아리를 겸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1)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지만 때로 소통에 장애가 된다.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분단의 세월만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한국의 언어는 외래어의 잦은 사용, 그리고 북한과 다른 존대법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언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언어의 문제,

그리고 한국 출신 강사와 북한 출신 교육생 사이의 서먹함 등 때문에 북한 이탈주민 심리지원 프로그램에 언어 외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한 활동가는 다음과 같이 도구를 이용한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원예치료를 계속해서 하고 미술치로나 레크레이션 웃음치료를 해보았는데 말로써, 심리상담으로 하는 것보다는 도구가 있어서 원예치료라던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함. 언어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음. 내가 그 사람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의외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새터민을 잘 모름.” (시민활동가 9)

이러한 접근이 유용한 이유는 이를 심리치료가 아닌 동호회의 성격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정신치료든, 심리치료든 치료의 성격으로 접근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저항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병원에 가는 것, 특히 정신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큰 병이 아닌 이상 병원에 잘 가지 않고 (시민활동가 3)” 특히 “북한에서 정신병은 격리 수용 대상이므로 한국에서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도 숨기는 경우가 많다(시민활동가 1)”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의 측면을 내세우지 않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이 낙인을 찍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방법일 것이다.

미술치료이든, 원예치료이든 이 자체의 효과 외에 이러한 동호회 모임은 참여자들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부산물이 있다. 동호회로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랫동안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 안하다가 1년 되니 자기 이야기 하고 어디 팔렸었고 어디 살았었다 나도 거기 살았다 자기 이야기 함. 남한 원예치료선생님 가시고 나면 사실상 2차가 더 도움이 됨. 프로그램 끝나고도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옛날얘기 지금, 앞으로 얘기들 함. 이런 것을 보고 너무나 말을 하고 싶구나 하는 것 알게 되어 멘토링해야겠다 생각함. 북한이탈주민 상담사는 접어두고, 새터민 중에 코칭공부도 하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하고 있는 분과 연결해서 월 1일씩 하지만 더 자주 만남. 전화하면 만나고 밤12시에도 기분이 슬프면 가서 만나고 오고.” (시민활동가 9)

이처럼 다양한 취미활동을 중심으로 동호회를 결성하게 하여 심리치료효과와 북한이탈여성 사이에 지지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2) 조직 및 운영방안

앞의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도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도록 한다. 즉, 북한이탈여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단체에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사는 문화체육부의 “문화예술강사”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부분의 전문가를 학교 교육에 파견하여 이들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동시에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높이는 제도이다. 이들을 새터민지원센터나 시민단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의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들 파견 비용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1)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 지원은 앞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의 체제가 한국과 워낙 다르다보니 여러 측면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하며 그 결과 한국사회 적응이 어려워 지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부모의 역할과 남녀 관계도 북한이탈여성에게는 낯선 것이다. 보육의 사회화가 이루어진 북한에서는 한국에 비해 부모의 역할이 한정적이라고 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의 교육성취에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이다보니 북한이탈여성으로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것이다. 한 시민활동가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부모역할이 전혀 안되어 있었음. 북한에서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다 맡기고 여성들도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오랫동안 떨어져있던 아이를 불러 데려와 같이 지내는 데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

는지 아이에게 교육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시민활동가 1)”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여성의 자녀 중에는 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해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응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부모교육이 북한이탈여성에게는 대단히 필수적인 것이다.

남녀 관계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북한사회는 한국사회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북한남성들은 성평등 교육이 필요한 반면 여성들은 한국사회와 접함으로써 남편에 대한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 이탈 후 결혼한 남성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중국에서 남편 잘못 만나면 그 남편 문제, 폭력, 알콜 등이 여기에서도 해결 안되고 있음. 조선족 남편 중에 일하지 않고 집에서 노는 경우 많음. 술이 세서 술먹고 주위에 친구 데리고 와서 여자가 자기 집이어도 못 들어가고 친구 집에 사는 경우 가끔 있음. 이혼하는 것도 쉽지 않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 (시민활동가 9)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남편에게 건전한 부부관계, 남성의 역할, 그리고 성평등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과 그들의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남편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도 일부 시민단체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런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교육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시민단체에 배포함으로써 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탈여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남한 멘토를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여성 알기 책자와 또 멘토 교육을 위한 매뉴얼도 필요하다. 남한 여성이 봉사정신으로 북한이탈여성의 멘토를 자원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2) 내용

가) 부모교육 매뉴얼

부모가 아이와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 의학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교육과 어느 정도 의지와 신뢰가 필요한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모 역할—학부모, 영양공급자, 학교 외 교육자, 문화적 조연자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도 제공한다.

나) 남편교육 매뉴얼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깰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의 필요성 및 정의에 대한 교육을 하며 교육대상자가 스스로 이상적인 남녀관계 모델을 정립하도록 한다. 가정폭력이 가정의 정상적인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임을 설명하고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지시킨다.

다) 멘토 교육 매뉴얼

남한 멘토 지원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을 북한체제와 탈북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설명한다. 북한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북한의 지역별 문화, 특산물, 음식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또 이들이 젊은 여성들의 멘토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육아, 여성건강, 생식건강 등에 대해 교육한다. 북한여성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인심리학과 대인기술을 교육한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pp.61-80.
- 강혜성(2011),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초기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최선경(20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평화학연구, 12:4, pp.328-347, 재인용.
- 광주새터민 건강복지센터(2011), 광주전남 새터민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 공릉종합사회복지관(2011), 새터민 여성을 위한 가이드북.
- 김병창(2009), 북한이탈주민 진료센터 진료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방안에 관한 세미나 2009.6.
- 김병창(2011),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2010 vol. 4. 정신건강정책포럼. 특별기고문.
- 김병창·유시은(2011), 「북한이탈주민 패널연구-정신보건-신체건강」, 북한이탈주민재단.
- 김국신 외(2011),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 김영자(2000),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제2회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 발표자료; 강차연(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pp.61-80, 재인용.
- 김윤영(2011), “강제소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 25:1, pp.157-199.
- 김종홍(2010), “북한 이탈주민 의료지원체계를 통해본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미래세대 통합의료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김현아·전명남(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pp. 120-160.
-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 방어기제와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1.
- 노인숙, 김창곤, 배미랑, 김은영 (2011),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 효과성 분석」,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중국 연변 지역의 탈북여성들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pp.1-16.

- 박상민(2010).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지원체계”, 미래세 대통합의료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2월.
- 백영옥(2002),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보, 6:1, pp.241-264; 강차연(2005), “재중 탈북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pp.61-80. 재인용.
-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손의정(2010), “북한이탈주민의 복합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따른 심리적 증상”,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미녀(2011), “북한 이탈주민의 신체건강 및 의료이용 실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 오원환 (2011), “탈북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엄태완(2005), “남북주민통합을 위한 정신건강전략”, 통일정책연구, 14:1.
- 여성가족부(2011), “여성인권증진 및 취약계층지원”, 2011년도 선정사업 목록.
- 여성가족부(2012), “장애여성 등 취약계층지원”, 2012년 공동협력사업 선정사업.
- 이기영, 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11.
- 이영선 외 (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평화문제연구소, 23:2, pp.147-193
- 이원용 (2003). “재외 탈북자 문제:현황과 정책적 제언”, 제 4기 북한인권 난민문제 발표자료
- 임정희(2010), “수원지역 북한이탈주민 건강지원사업 현황”, 경기도광역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 장혜경, 김영란(2001), 『이탈주민 가족의 가족 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진용(2011),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 인식에 따른 정신건강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정우곤(2006), “북한 사회복지제도와 사회경제적 계층구조 변화”, 국방연구, 49:1, pp.83-112.
- 정진용(2011),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과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조영아, 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사회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pp17-35.
- 조화성(2011), “북한이탈여성의 여성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연구 성원권의 시각을 중심으로”; 최선경(20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평화학연구, 12:4, pp328-347. 재인용.
- 최동문(2009), “북한이탈주민 정착적응 실태와 발전방안”, 경북대 행정학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빛내, 김희경(2010), “탈북여성의 강제복송 여부에 따른 정신건강 차이”,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 pp.299-300; 최선경(20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평화학연구, 12:4, pp.328-347. 재인용.
- 최선경(2011),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탈북여성의 남한사회적응의 어려움과 정착지원 방안”, 평화학연구, 12:4, pp.328-347.
- 통계청(2012), 10월 입국자 기준자료, 정착지원과.
- 통계청(2012), 5월 입국자 기준자료, 정착지원과.
- 통일부(2012), 「201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pp.21-51.
- 하나원(2009), 건강증진 방안 세미나, 재인용.
- 하지현(2009),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소통방법의 이해”, 통일인문학논총, 53, pp.303-329.
- 한인영 외 (2010), “북한이탈여성의 성지식 실태 연구”, 한국심리학회, 15:1 pp.87-10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http://www.dongposarang.com>.
- 이북5도위원회 홈페이지(검색일: 2012년 11월 17일). “북한이탈주민지원.” <https://www.ibuk5do.go.kr/resident/society.asp>
-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검색일: 2012년 11월 11일). <http://whrdorkr.cafe24.com/wp/?cat=14>

Abstract

Measures for assisting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covery of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Soo-yeon Lee
Won-hong Kim
Young-taek Kim
In-soon Kim

In this study, we propose ways to assist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recovery of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beyond the initial support applied to all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which would accommodate their situation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the unusual experiences of escaping from North Korean, entering into and settling down in South Korea as a woman.

The state agencies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run programs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ly with the objective of recovering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and have accomplished it to a certain degree. However, their programs fall short of tailoring to the psychological situation of female defectors who have experienced

acrimonious displacing processes and facing a new set of problems in this new land.

For measures tailored to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recovery and wellbeing, we propose a focuse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a psychological assistance as part of employment support package, a psychological therapy through art and culture hobby classes, and development of manuals of parenting education, husband education and (South Korean) mentor education. The focused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aims at resolving the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psychological anxieties and facilitating their social adaptation through individual counseling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temperament and situation. The psychological assistance added to employment support package is realized as lectures or individual counseling as part of career development program. The psychological therapy can also be given through art and culture activities offered in art and culture hobby clubs. Finally, the education manuals need to be written to facilitate the adaptation of their own or their partner to the roles expected to perform in the South Korean society.

2012 연구보고서(수시과제)- 9

**북한이탈여성 심리안정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연구**

2012년 12월 28일 인쇄

201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ISBN 978-89-8491-506-0 93330

<정가 9,500 원>